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 Contents

### ● 국제물류 통계

- 지난해 글로벌 계약물류시장 규모, 팬데믹 이전 수준 증가

###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중국-베트남 철도운송, 코로나19 이후 큰 폭 증가
- 말레이시아 물류시장 동향(2) : 최종 고객별 점유율을 중심으로

###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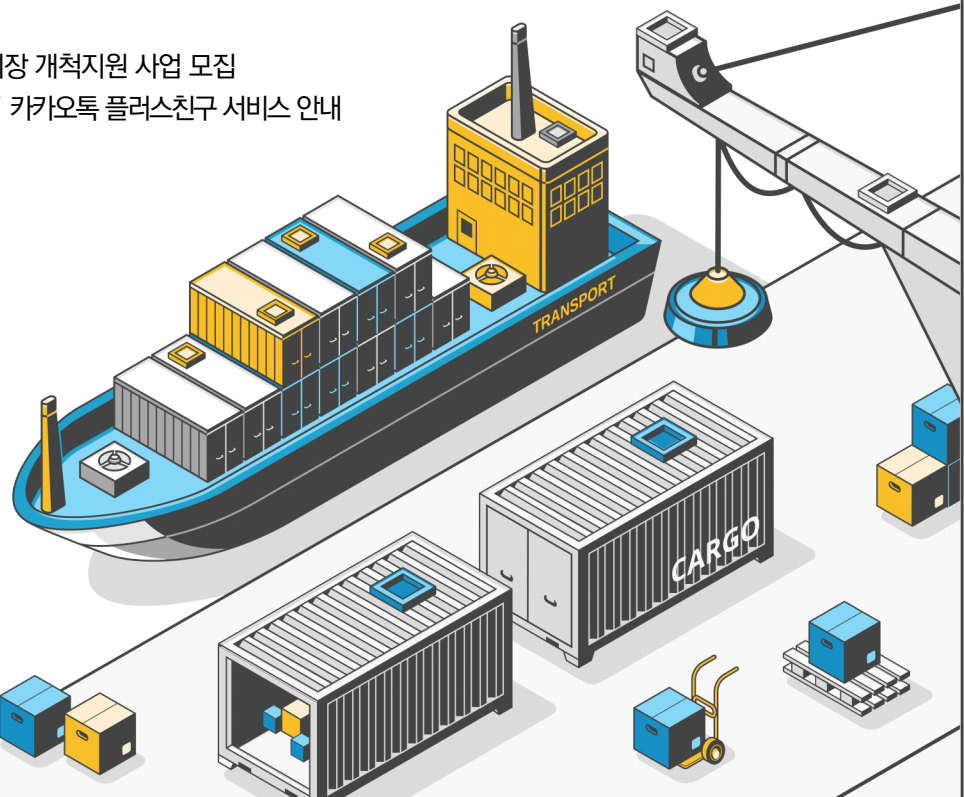
- 중국 상하이 봉쇄, 미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

### ● 글로벌 물류시장 이슈분석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변화와 동향

### ● 공지사항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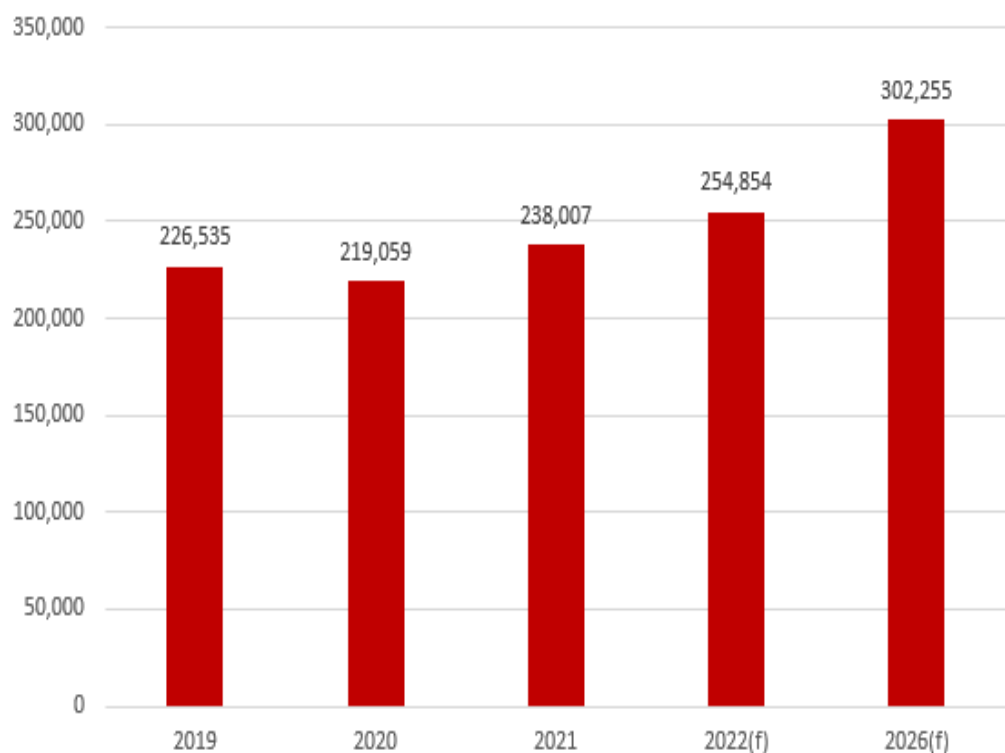
## 지난해 글로벌 계약물류시장 규모, 팬데믹 이전 수준 능가

- ▶ 글로벌 계약물류시장 규모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효율적인 백신 보급과 봉쇄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섬

- 2019년 약 2,265억 3,500만 유로 규모였던 글로벌 계약물류시장은 2020년 약 2,190억 5,9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2,380억 7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7%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섬
- 이는 2020년 팬데믹 확산에 따른 활동 제재가 2021년 하반기부터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수요 증가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글로벌 계약물류시장 규모는 약 7.1%(2,548억 5,400만 유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약 3,022억 5,5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계약물류시장 규모(2020-2022년, 2026년(전망))

(단위 :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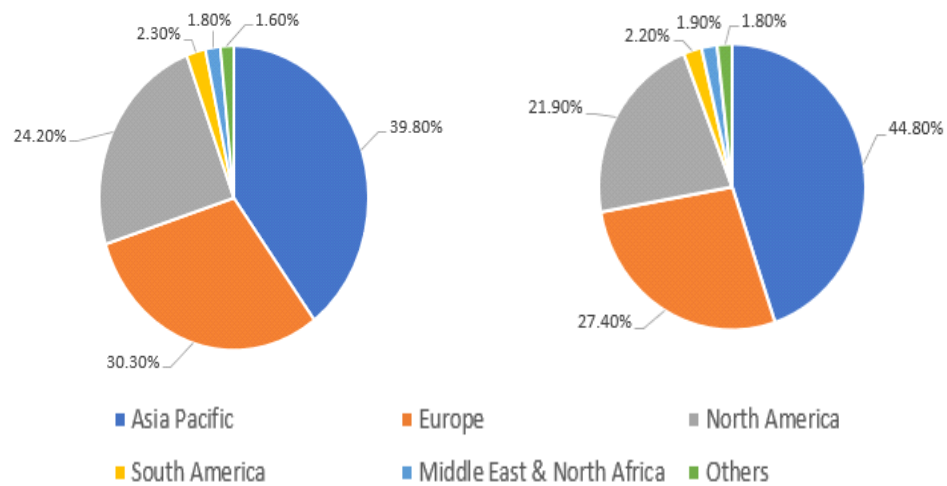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Contract Logistics Market Size & Forecasting, 2021-2026, 2022.*

-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21년 기준 가장 큰 계약물류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 성장해 2026년에는 중국이 미국 시장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글로벌 계약물류시장의 39.8%를 점유한데 이어 2026년에는 44.8%까지 확대되는 반면 유럽과 북미 지역은 2021년 각각 30.3%와 24.2%의 점유율이 2026년에는 각각 27.4%와 21.9%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지역별 글로벌 계약물류시장 점유율(2021년, 2026년(전망))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Contract Logistics Market Size & Forecasting, 2021-2026*, 2022.

참고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Contract Logistics Market Size & Forecasting, 2021-2026*, 2022.

## 중국-베트남 철도운송, 코로나19 이후 큰 폭 증가

- ▶ 지난해 중국-베트남 간 철도운송 물동량은 약 116만 톤으로,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전년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국 간 철도운송은 국경지역에 위치한 중국의 라오까이(Lao Cai)와 베트남의 동당(Dong Dang)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음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공항 및 항만 폐쇄에 따른 대체 운송수단으로 철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부터 이어온 물동량 증가 추세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양국의 핵심 무역루트로 급부상하고 있음
- ▶ 양국 철도운송 물동량 증가에 따라 신규 철도노선 개통 및 철도로의 운송수단 전환 등이 확대되면서 철도화물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달 중국 청두와 베트남 하노이를 잇는 철도운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됐으며, 청두에서 출발해 평상을 거쳐 하노이까지 약 5~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두-하노이 철도운송은 기존 해상 및 트럭킹을 활용한 복합운송 대비 비용 및 시간을 각각 20%와 3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청두는 중국 서부지역의 핵심 내륙물류허브로 지난 3월에는 중국-라오스 간 철도운송을 시작하는 등 아세안 지역과의 국경무역 규모를 늘려가고 있음

### 청두-하노이 간 화물열차



자료 : www.globlatimes.cn, (검색일 : 20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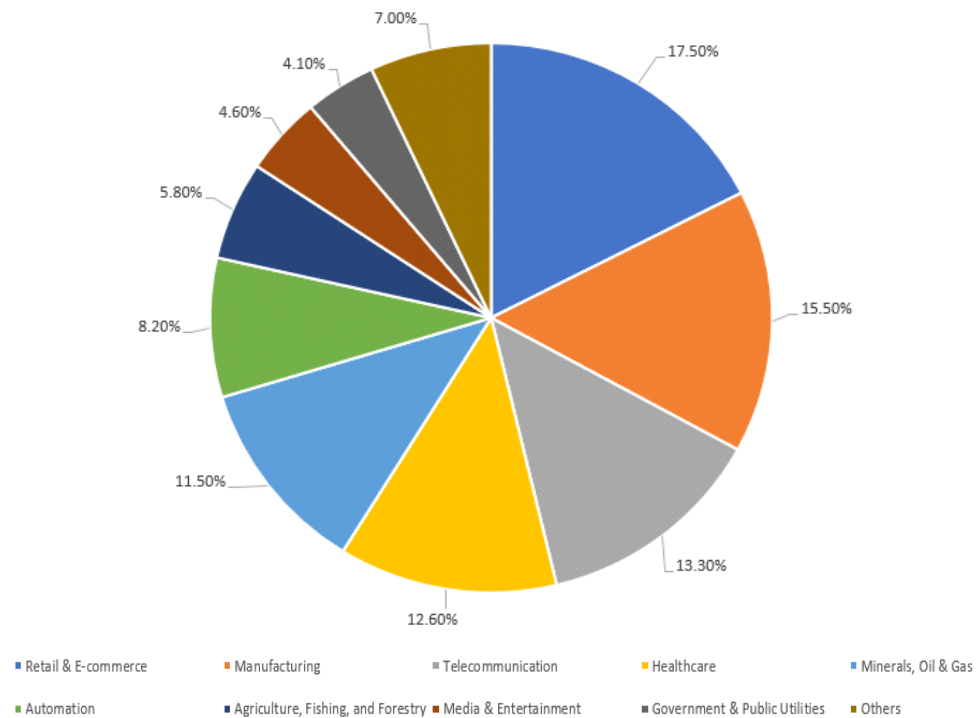
- 중국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아세안 간 철도운송 물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핵심 운송루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을 비롯해 태국, 라오스 등 중국과 인접한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철도를 이용한 국경무역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함
  - 베트남 및 중국 정부는 양국 철도운송 확대를 위해 신규 철도노선 개발 및 물류거점 확보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과 아세안 무역의 핵심 물류루트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대란, 상해 봉쇄로 인해 선박 대기 급증 및 항만 적체 등으로 해상운송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운송 수요는 당분간 증가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시아 물류시장 동향(2) - 최종 고객별 점유율을 중심으로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물류시장 점유율을 최종 소비자별<sup>1)</sup>로 살펴보면 소매 및 전자상거래 부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제조, 통신, 그리고 의료 부문이 그 뒤를 이음
  - 총 186억 7,240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물류시장에서 소매 및 전자상거래 부문은 17.5%(32억 6,767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제조(약 28억 9,422만 달러, 15.5%), 통신(약 24억 8,343만 달러, 13.3%), 의료(약 23억 5,272만 달러, 12.6%) 순임
  - 지난 몇 년간 라자다<sup>2)</sup>, 쇼피<sup>3)</sup>, 그리고 알리바바와 같은 유통플랫폼들의 풀필먼트 및 실시간 위치 추적 서비스 등과 같은 물류 혁신이 유통 및 전자상거래 부문의 비중을 높인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말레이시아 물류시장 최종 소비자별 점유율(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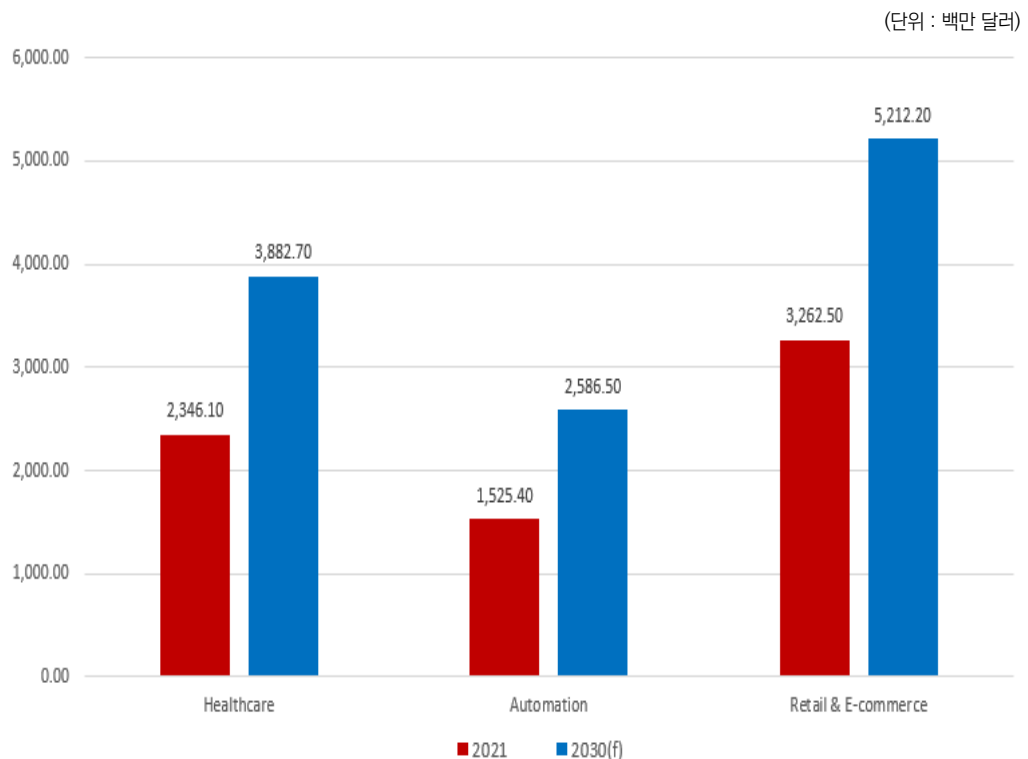
자료 : Market Stats Ville, *Malaysian Freight and Logistics Market Research Report*, 2022.

- 최종 소비자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의 물류 시장을 i) 소매 및 전자상거래, ii) 제조, iii) 통신, iv) 의료, v) 광물, 원유 및 가스, vi) 자동차, vii) 농수산업 및 임업, viii)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ix) 정부 및 공공 사업, x) 기타 총 10가지 부문으로 구분함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Lazada)는 2012년 독일계 회사인 '로켓 인터넷'이 설립한 다국적 기업으로 지난 2016년 알리바바 그룹에 인수된 이래 동남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오픈마켓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연 8천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음
- 라자다와 함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시아에서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남아시아를 주된 시장으로 삼지만 대만과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음

- 2021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물류시장 점유율을 최종 소비자별로 살펴보면 소매 및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최종 소비자 부문별 말레이시아 물류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자동화 부문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 그리고 소매 및 유통 부문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 자동화 부문의 시장규모는 2021년 15억 2,540만 달러에서 2030년 25억 8,650만 달러로 6% 증가해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 물류시장의 연평균 성장 전망치인 4.8%를 상회할 전망임
- 다음으로 의료와 소매 및 전자상거래 부문이 같은 기간 각각 5.8%(2021년 23억 4,610만 달러, 2030년 38억 8,270만 달러 전망)와 5.3%(2021년 32억 6,250만 달러, 2030년 52억 1,220만 달러 전망)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말레이시아 물류시장의 최종 소비자 부문별 성장률(2021년, 2030년(전망))



Market Stats Ville, *Malaysian Freight and Logistics Market Research Report*, 2022.

참고자료 : Market Stats Ville, *Malaysian Freight and Logistics Market Research Report*, 2022.

## 중국 상하이 봉쇄, 미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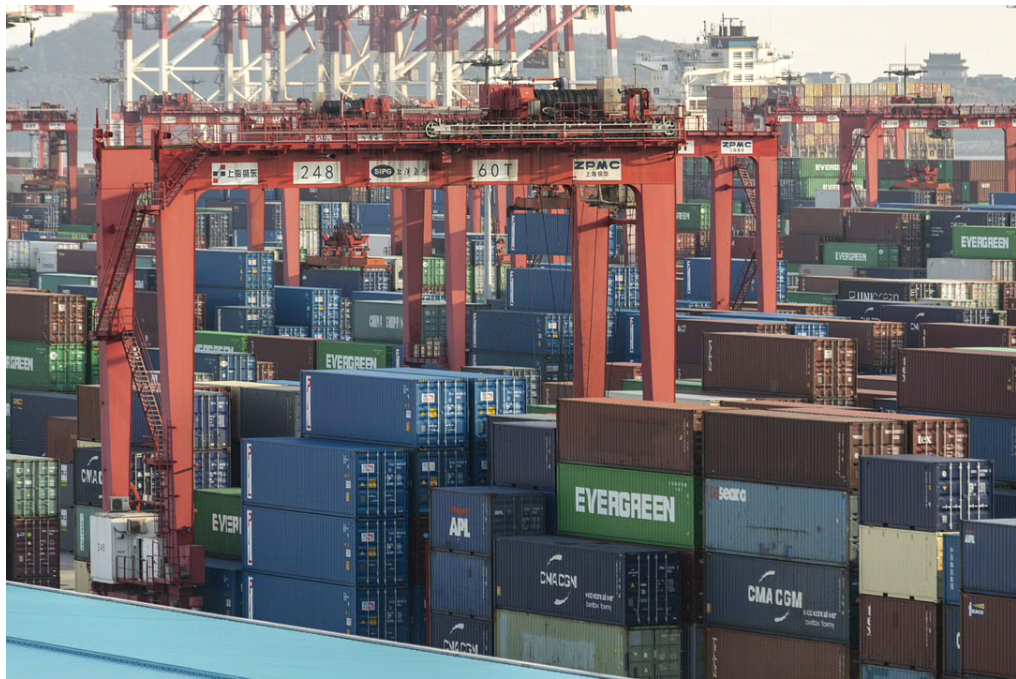
- 지난주 Bloomberg가 중국의 상하이 봉쇄 정책으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고 트럭 운송이 멈추면서 항만 적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음
- 해운 분야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미국의 Windward는 중국 내 입항 대기 중인 선박이 506척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초기 2020년 2월 260척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임을 강조했다
- 아울러 중국 상하이항에 하역된 수입품 컨테이너가 중국 내 배송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12일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지난달 평균 4.6일에서 약 3배가 증가한 것을 의미함
- 중국 상하이항의 적체를 발생시키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 내 육로 운송 중 하나인 트럭 운행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4월 상하이를 통과하는 일일 트럭 물동량은 봉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9%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음
- 이는 중국 내 물류뿐만 아니라 상품을 수출입 하는 글로벌 물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하며 회복 중인 세계 경기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지적함
  - 미국의 화물업체 Flexport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미국 내 창고에 입고하는데 평균 111일이 걸리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유럽은 더욱 심각해서 유럽 내 창고에 도착하는 기간은 평균 118일로 집계됐음
- 미국의 유력 일간지 NYT는 중국 상하이 봉쇄가 이르면 5월 초 늦으면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7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 상하이 주재 테슬라 공장은 3주간 조업을 중단했으며, 애플 노트북 등에 소요되는 주요 부품들의 부족 사태로 일부 모델의 경우 리드타임이 최장 2주 증가했음



● 아울러 중국 상하이 봉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 일반적으로 GDP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7%에 이르기 때문에 항만의 적체는 대부분 물가 상승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 상하이발 물류대란은 이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5% 상승한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수입품의 18%가 중국산이며 이 중 컴퓨터와 전자제품은 35%에 이를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

중국 상하이항에 적체된 컨테이너



자료: Bloomberg "Containers Pile Up at China Ports as Lockdown Blocks Trucks", (검색일 : 2022.5.2.)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변화 동향

### 2021년 6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요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했음

-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소광물 및 의약품 등의 4대 핵심 품목 외에도 방위산업, ICT, 에너지, 운송, 농업 등의 산업에서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품목과 산업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중요품목 공급망 검토 배경〉

- 일반 활성 의약품 원료 시설의 약 90%가 해외에 위치함
- 희토류 생산 부문은 1980년 중반까지 미국이 세계 1등이었으나 지금은 중국이 세계 정제능력의 85%를 통제하고 있음
- 지난 40년간 미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40%에서 10%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함
-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의 핵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경쟁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 대용량 배터리 분야의 중요성 증대

### 바이든 정부의 이번 공급망 정책은 범정부적 대응이라는 특징을 지님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미국의 안보, 경제, 기술 지배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미국은 오랫동안 비용 측면의 시장 효율성을 강조해온 결과 제조업과 산업 기반이 침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고용, 임금, 생산성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주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미 국가안보위원회 및 경제위원회가 진단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원인

### 미국 내 생산 능력 부족(insufficient U.S. manufacturing capacity)

- 제조 역량의 상실이 혁신 능력의 저하로 연결되면서 국가 경쟁력 하락 유발
-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에 따른 제조 일자리가 사라지고 및 생산성 성장이 정체됨

## 미국 글로벌 공급망 4대 핵심 품목의 대외 의존도와 취약 사례

품목	해외의존도(주요 생산국)	취약 사례
반도체	88%(한국, 대만, 일본, 중국)	•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포드, GM 등 자동차 생산 중단 및 고용 위축
배터리	90%(한국, 중국, 유럽)	•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소송으로 인해 포드의 자동차 생산 차질
의약품	70%(중국)	•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생산 지연으로 인한 공급 부족 • 마스크 생산량 부족으로 코로나19 의료진 마스크 재사용
희토류	70%(중국)	• 중국 정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 등

자료: S&T GPS “미국, 해외 의존도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행보 주목” 참조  
한국일보 “바이든의 ‘첨단물자 새판짜기’ 청구서 임박… ‘최대 피해국은 중국과 한국’ (2021.6.9.)

- ▶ **민간 기업들의 단기 실적주의 및 어긋난 인센티브 제도(misaligned incentives and short-termism in private markets)**
  - 단기 수익 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의 투자가 미흡해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함
  - 품질,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 ▶ **동맹국, 경쟁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 adopted by allied, partner, and competitor nations)**
  - 미국은 산업 기반 투자가 감소했지만, 우방국, 파트너국 및 경쟁국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
  - 특히 중국 정부의 핵심 공급망 내 시장확보를 위한 공격적 지원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 **글로벌 공급원의 높은 지리적 집중(geographic concentration in global sourcing)**
  -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소수 국가 및 지역에 공급업체가 집중됨
  - 특히 낮은 임금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중국 등의 국가들에 집중됨
- ▶ **제한된 국제협력(limited international coordination)**
  -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높이기 위한 국제 외교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음
  - 위기 시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했음

**미 연방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과 국가 혁신 동력을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

- **제조 및 혁신 역량 재건(rebuild our production and innovation capabilities)**

  -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자금 제공
  -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할인제도 및 세금 인센티브 지원
  -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 자금 지원
  - 새로운 공급망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수립
  - 핵심 산업에서 생산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이하 DPA」 활용
  - 다음 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
  - 신약 제조 및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투자
  -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약소기업 지원
  - 국내 제조산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확인
  - 산학협력과 직업훈련(현장학습 및 도제제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장발전 지원(support the development of markets that invest in workers, value sustainability, and drive quality)**

  - 주요 희소광물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기준 수립
  - 미국 내 주요 희소광물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입지 발굴 및 식별
  - 의약품 공급망 투명성 제고
- **중요품목의 구매와 투자자로서의 정부 역할 활용(leverage the government's role as a purchaser of and investor in critical goods)**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연방 조달제도 적극 활용
  - 연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과학 및 기후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 생산 요구 강화
  - 미국 전략비축 제도 개선 및 강화
  - 높은 노동기준을 충족하면서 미국 내 새로운 자동차 배터리 생산 보장
- **국가 간 무역 집행 메커니즘 및 규범 강화(strengthen international trade rules, including trade enforcement mechanisms)**

  - 무역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창설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해외 무역관행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
  - 희토류의 대표적 제품인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 여부 조사

미국 및 주요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투자 비율



자료: ResearchGate 참조 (www.researchgate.net)

-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decrease vulnerabilities in the global supply chains)**
  - G7, QUAD<sup>4)</sup> 등과 같은 다자간 외교적 협정 확대
  - 공급망 회복탄력성 증대를 위한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및 다른 금융지원제도를 활용
-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기적 공급망 혼란 모니터링**
  - 공급망 혼란 전담반 설치
  - 단기적 공급망 취약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구축

4)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QUAD)란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담,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한 것을 의미함



###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변화

- 바이든 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Brien Deese<sup>5)</sup>는 미국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음
  -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의제 중 하나로서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의 기반을 재건하는 전략임

###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

-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D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언급했으며 이는 첨단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임
-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확보한 혁신을 미국 내 제조업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 아울러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특징은 충분한 용량, 혁신, 위기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생산을 확보하는 것임
- 아울러 동맹국가 및 주요 협력국가로부터 지속 가능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급변하는 제품의 수요, 다중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 연결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투자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5) Brian Deese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었으며 2016년 파리 기후협약을 끌어냈던 인물로서 42세의 나이로 백악관 역사상 가장 젊은 국가경제위원장이 되었음

### 공공투자의 집중과 효과적인 공공 조달

- 공공투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제조기업, 연구자, 근로자,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임
- 시장의 본질적 특성으로 전체 산업에 이익이 되는 기술이나 혁신 또는 인프라 등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가 필요함
- 미국의 공공/민간 R&D 투자는 GDP를 고려하면 세계 9위 수준임(2018년 기준 2.9%)
- 이에 반해 중국은 제조업 기반 구축 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중국 개발 은행은 2021년에 전략적 신흥 산업과 선진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620억 달러 대출
- 공공투자의 우선 대상은 제조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제조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사회, 노동자, 기업을 위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용이함
- 아울러 정부의 공공투자는 하이 로드 생산전략(high road production strategies)<sup>6)</sup>과 결합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미 연방정부는 매년 6,000억 USD 이상을 지출하는 최대 규모의 구매자임
-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출은 미국의 산업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수익 실현의 불확실성으로 공격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할 동기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6) 비용 절감으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로우 로드 생산전략(low road production strategies)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교육, 혁신 등을 통해 품질, 기술, 차별화된 가치 등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전략을 의미함

- 오바마 행정부에서 NASA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정부의 임무 요구를 충족시키고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을 끌어낸 사례는 포괄적 조달 정책의 성공적 사례임
-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sup>7)</sup>이 있음

#### 〈미국 혁신경쟁법의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산 통신장비 의존을 금지하고 미국의 기술우위 유지
- 중국위협에 대비해 우방국 및 파트너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며 주요핵심 장비, 부품 및 기술의 수출 통제
- 국립과학재단(NSF<sup>8)</sup>) 내 기술국을 신설하여 연구 안보를 강화하고 STEM<sup>9)</sup>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산 제품 구매 대신 Buy America 적용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일반특혜관세(GSP<sup>10)</sup>) 제도 재개 및 강제노동/지식재산권 탈취제품 수입금지
- 중국의 인권탄압 등의 행위에 대응할 기존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규 제재 발굴

####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 미국은 효율성 중심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했음
-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투자를 통한 생산 능력과 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sup>11)</sup>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7) 2021년 6월 8일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하원 표결 대기 중임

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9)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의미

10)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약자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11) 미국의 중도 성향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Stimson Center의 Gahlaut 박사는 동맹국의 협력이란 동맹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고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가를 자국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 따라서 미국의 위협과 취약점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는 국가만이 미국이 새롭게 재편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 중·단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4가지 핵심 품목부터 우선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며 QUAD와 G7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 ▶ 바이든 행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리쇼어링(re-shoring)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판단
    -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이 불가능할 경우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유지할 것임
- \*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란 동맹국을 기반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참고자료

- 박유미, 『바이든 산업 정책의 다섯 가지 핵심』, 산업경제연구원, 2021.
-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리포트」,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1. Vol.15.
-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 [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09/inequality-cost-u-s-nearly-23-trillion-since-1990-may-worsen](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9-09/inequality-cost-u-s-nearly-23-trillion-since-1990-may-worsen) (검색일: 2022.4.19.)
- <https://edition.cnn.com/2022/01/28/perspectives/us-manufacturing-supply-chain-semiconductors/index.html> (검색일: 2022.4.20.)
- [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24/executive-order-on-americas-supply-chains/](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2/24/executive-order-on-americas-supply-chains/) (검색일: 2022.4.12.)
-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041650&menuNo=200004&pageIndex> (검색일: 2022.4.25.)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2년 3월 23(수) 09:00 ~ 5월 4일(수) 16:00 까지

##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사업대상

##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창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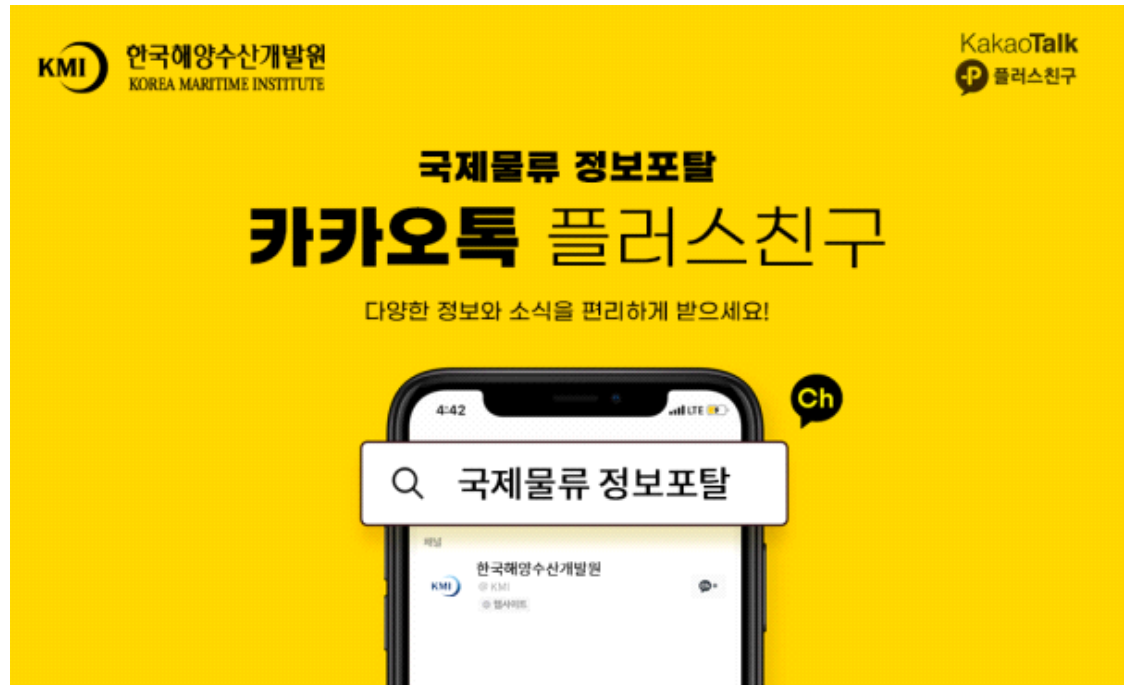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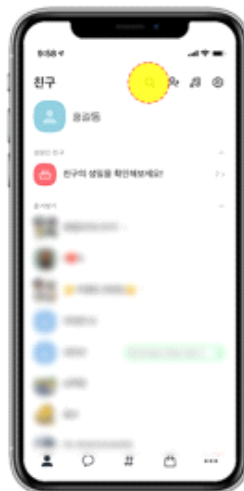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